



더불어 웃고, 함께 나누는 하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홍인지문 바자회

지난 10월 17일, 우리 복지관 앞마당에서 홍인지문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홍인지문 바자회는 우리 복지관과 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따뜻한 나눔의 축제입니다.

이날 바자회 부스에는 생필품부터 의류, 음식, 잡화, 건강식품 등 다양한 물건이 가득했는데요.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기업과 주민들이 장애 당사자들의 자립과 행복을 돕는 마음으로 선뜻 후원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가득한 진열대를

삼삼오오 둘러, 물건을 고르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홍인지문 바자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복지관과 지역주민이 만나는 만남의 장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과 지역주민이 한 공간에서 웃고 대화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하루는,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자회날, 복지관은 가장 활기찬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따뜻한 마을이 되지요. 전주에서 향수 업체를

운영하는 한 조향사는 이번 바자회를 위해 향수를 제작하여, 직접 차로 4시간을 달려 복지관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수 만든 공예품을 내놓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작은 순환 속에서 이웃을 돕는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은 모두 장애 당사자의 자립과 행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루의 나눔이 한 사람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2025년 추석맞이 ‘한가위 보름달꾸러미’ 전달

풍요로운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복지관은 지역 내 장애인 140가정에 정성이 담긴 ‘한가위 보름달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꾸러미에는 한상차림 음식과 추석 식품 선물세트, 고기, 과일 등 명절 분위기가 한가득 담겼습니다.

이번 나눔은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 사랑의 기적소리 봉사회,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본부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명절을 보내는 장애인 이웃들이 따뜻한 식사를 즐기고, 마음까지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모아주었습니다.

후원받은 물품들은 정성껏 포장되어 각 가정에 전달되었는데요. 복지관 직원과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안부를 전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명절 음식을 먹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이것이 명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추석의 풍성한 보름달처럼, 서로를 기억하고 나누는 마음이 지역사회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빛는 마음

한식진흥원 송편 만들기 체험

지난 9월 25일, 추석을 앞두고 한식진흥원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송편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우리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고 나누며, 음식이 가진 문화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된 이번 활동에는 총 18명의 참여자가 함께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로부터 한식의 역사와 송편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직접 반죽을 빚고 송편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원하는 속재료를 고르고 모양을 빚으며 자신만의 송편을 완성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가 오갔습니다. 또 송편이 익기를 기다리며 서로의 작품을 비교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한 참여자는 “요즘은 집에서 송편을 잘 빚지 않는데, 오랜만에 만들어보니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오동통대학, 스포츠 재능나눔 참여

지난 9월 19일 오동통대학 참여자들이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진행하는 '2025년 육상팀 스포츠 재능나눔'에 참여했습니다.

이 재능나눔은 보다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육상의 다양한 종목을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오동통대학 참여자들은 서울시청 소속 장애인 육상팀의 이윤오 감독과 실제 선수들의 지도를 받으며 50m 달리기와 포환

던지기 두 종목을 직접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50m 달리기에서는 현역 선수들의 실제 훈련법을 참여자의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배웠고, 참여자들은 트랙 위를 달리며 자신의 기록을 측정해보았습니다. 포환던지기 체험에서는 실제 포환 대신 유사한 무게와 질감의 공을 사용해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선수들의 시범을 따라 어깨와 팔의 힘을 이용해 던지는 법을 배우고 직접 시도해보았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달리고 던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참여자들은 한껏 웃으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와 끝까지 활동에 몰입했습니다. 소중한 즐거게 참여해준 참여자들에게 기회를 마련해준 서울특별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 끝으로 나누는 마음

동행 플로깅 & 문화체험

지난 9월 1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동행 플로깅 & 문화체험(목공예)'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대문구청이 주관하고 신협중앙회사회공헌재단과 용신동대명신협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깨끗한 마을을 만들고, 나무공예 체험을 통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의 성인 장애인과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많은 비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은 아쉽게 취소되었지만, 참여자들은 올해 3월 문을 연 천장산나무공방으로 자리를 옮겨 따뜻한 나무 향이 감도는 공간에서 목공예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본드칠과 조립, 망치질, 오일 바르기 등 낯선 공예의 과정을 서로 도우며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완성된 손잡이 트레이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편집자의 말 |

더위가 한풀 꺾이고 추석이 찾아오는 10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자연스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늘 이맘때면 함께하는 것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일,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 그리고 잠시라도 마음을 나누는 일. 그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서로의 삶을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이번 달 우리 복지관도 그런 '함께'의 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역주민과 직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당에 모여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고, 추석을 맞아 따뜻한 정을 전했습니다. 또 함께 송편을 만들며 서로의 추억을 나누고, 함께 나무공예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했지요. 모두 '함께'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하루들이었습니다.

이번 10월, 우리 복지관이 전하는 '함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은 온기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김동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